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및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교제 만족도와의 관계

김혜원* · 성정혜** · 이상호*** · 배윤진****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방식의 유형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대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2) 갈등대처방식의 유형과 이성교제 만족도의 관계에서는 성별과 순응형, 지배형, 회피형일 때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또한 타협형과 통합형에 있어 이성교제 만족에 대한 주효과가 나타났다. 3)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방식 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및 결혼생활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생,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방식, 이성교제 만족도

논문제출일 : 2012. 11. 15

최종심사일 : 2012. 12. 5

게재확정일: 2012. 12. 13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과정, 주저자

** 경북대학교 아동가족학과 학사과정, 교신저자

*** 경북대학교 천연섬유학과 학사과정

**** 경북대학교 아동학부 강사

Corresponding Author : Jung-Hye Sung,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80 Daehak-ro, Buk-gu, Daegu 702-701, Korea, E-mail: wjdgp8704@nate.com

I. 서론

인간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대인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 때문에 인간의 삶은 만남의 연속이라고 말할 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와의 관계를 맺고 성인이 되어 이성과의 정서적 만남 속에서 친밀감과 만족감을 경험하며 성장하는 연습을 하게 된다. 특히 대학생은 발달 단계상 청년 후기에 해당 되며, 이 시기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조정되고,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 이성교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이성과의 만남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 보다 만족스러운 관계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게 된다.

이성관계란 사랑의 감정을 가지는 열정적인 면과 서로의 돌봄 동시에 하나라는 생각과 서로에게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는 보호적인 면을 가지는 관계로 친구관계와는 구별되는 미혼 남녀의 관계이다(손현지, 2009). 이성 관계는 대부분 이성교제로부터 비롯되는데, 이성교제란 어떤 계약적인 책임을 가지지 않는다는 이해 위에서 이루어지는 미혼 남녀 간의 자연스러운 만남으로부터 시작하여 결혼하기까지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다(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이처럼 한 개인은 이성교제를 통해 사랑이라는 감정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다양한 가치관을 습득한다. 또한 이성교제는 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같이 이뤄 나가야 할 지속적인 관계이므로 이러한 관계에서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이성교제를 경험하는 개인에게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성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하는 정도는 개인의 삶의 만족도와도 깊은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교제에서 관계에 만족하는 정도가 어떠한 요인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즉, 이성교제 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신뢰 정도와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정서적 신뢰는 상대방과의 관계가 지속 될 것이며 의지하고 기댈 수 있다는 믿음의 정도를 의미한다. 또한 정서적 신뢰는 정서적으로 자신을 지지해주는 타인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성으로서 정서적 지지가 유용한 상호작용 속에서 함께 하는 것이다(Ryan, La Guardia, Butzed, Chirkav, Kim, 2005). 정서적 신뢰에서 정서적 지지에 대한 여부는 정서적 지지를 받는 사람의 기본 심리적 욕구를 촉진시킬지, 저해할지에 달려있다. 기본 심리적 욕구는 유능성, 관계성, 자율성의 욕구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세 가지 욕구의 만족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은 삶의 만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이라고 하였다(Deci & Ryan, 1985, 2000). 또한 이루진

(2008)의 연구에 따르면, 이성교제중인 관계에서 많은 양의 정서적 개입이 있을 때 관계만족이 향상되며 이성교제에서는 친밀감이 관계만족과 유지의 중요한 예언변인이 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이 친밀감에 비중을 두는 정도와 그러한 친밀감을 형성하도록 돕는 상황적 요인이 이성교제 만족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연구한 결과 친밀감을 추구하는 정도가 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 보다 더 큰 만족을 나타냈을 뿐 아니라, 상황적인 도움의 여부와 상관없이 관계만족을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미뤄보아 정서적 신뢰에 있어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 여부와 정서적 지지가 관련이 있으며, 전반적으로 기본 심리적 욕구의 충족 수준이 높고 정서적 지지도가 높을수록 관계 내에서 상대방에게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고 이로써 관계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애정관계에서 상대방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것은 심리적 건강을 촉진시키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므로 이성교제 내에서 만족도를 높여주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갈등이란 사람들이 살아가다보면 흔히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으로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사건이나 행위에서 적대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우호적인 관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고(Deutsch, 1973), 갈등대처방식이란 개인이 갈등 직면했을 때 문제에 대처하고 처리하는 다양한 행동과 관련된 개인적 지향성이다(Folger & Poole, 1984). 또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갈등대처방식이란 상대방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나가는지에 대한 태도로서 교제 기간 중 갈등 수준이 결혼 후 적응수준의 예견지표가 될 수 있다(Kelly, Huston & Cate, 1985).

Cramer(2000)에 따르면, 이성교제에서 갈등발생횟수와 더불어 갈등 상황에서 화를 내거나 대화를 피하는 것과 같은 부정적인 갈등대처방식이 이성교제에서의 만족도를 떨어뜨리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또한 Lloyd(1985)의 연구에서는 갈등이 많으면 두 사람 관계에서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갈등이 잘 해결된다면 오히려 만족도가 커진다는 결과를 보여주어, 갈등 자체보다는 갈등에 대처하는 방법이나 얼마나 만족스럽게 갈등을 해결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입증하였다. 다시 말해 이성교제에서 갈등에 대처하는 방식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갈등은 사회적 관계의 본질이고 현실적인 문제로서(박승민, 이수원, 1993), 갈등은 오해와 불신을 초래하는 등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만 잘 해결한다면 개방적이고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며 관계 내 의사결정의 질을 향상시킬 수도 있고 관계의 변화를 촉진하게 되어 전반적인 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관계에서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Cooper & Cooper, 1992). 갈등대처의 목표는 갈등을 잘 해결하여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며, 많은 연구들에서 갈등대처방식과 정신건강은 관계가 있

다고 밝혀왔다(박영화, 고재홍, 2005; 박윤경, 김은정, 2007). 또한 이성교제에서의 갈등이 이성교제에서의 적응문제나 정서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이복동, 2000), 이성교제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상황에서 갈등에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은 이성교제 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 여겨진다.

갈등대처방식은 경쟁형, 회피형, 순응형, 타협형, 협동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쟁형은 지배형이라고도 불리며 갈등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권력이나 힘을 이용해 공격적으로 설득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고, 회피형은 갈등상황에서 한 발짝 물러서서 상대방과 자신의 관심사를 모두 무시하는 유형이다. 순응형은 자기 자신의 욕구는 무시하고 상대방의 관심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으로 비주장적인 유형이며 타협형은 상호희생과 타협을 통해 자신과 상대방의 관심이나 욕구가 중간인 상태로 놓고 부분적으로 만족을 취하여 갈등을 해결하는 유형이다. 협동형은 서로 간의 욕구가 모두 적절하게 만족되는 해소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방법으로써 갈등대처유형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방법이다(이지연, 2011). 이와 관련하여 Bahr(1989, 최선우 2010 재인용)는 경청, 동정심, 융통성, 타협에의 의지와 같은 긍정적인 대처방식은 관계만족을 높이는 반면, 갈등에 대한 회피, 부인, 비난, 공격, 부정적 상호관계 등은 관계만족도를 낮춘다고 설명하였다. 이렇듯 각각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영역을 세분하여 각 영역별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이성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신뢰와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그리고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이 이성교제에서 갈등 및 불만족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할 때 관계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및 결혼에 관한 교육프로그램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2] 대학생의 갈등대처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3]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별과 갈등대처방식,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이성관계 만족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D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중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연구대상은 총 528명으로 남자 280명, 여자 248명이었으며, 1학년 192명, 2학년 137명, 3학년114명, 4학년 8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연령을 살펴보면, 19세 이하 11명, 20-25세 477명, 26-30세 40명이었다.

2. 측정도구

1) 정서적 신뢰도

이성과의 관계에서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Ryan, La Guardia, Butzel, Chirkov와 Kim(2005)이 개발하고 김영미(2005)가 한국판으로 번역한 정서적 신뢰도 척도(Emotional reliance: ER)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박상희(2012)가 부부관계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가지는 정서적 신뢰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문항 수는 총 10문항이며, 5점 척도로 평가되어 점수가 높을수록 상대방에 대한 정서적 신뢰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2) 갈등대처방식

갈등대처방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Berko, Rosemfeld 및 Samovar(1997)이 개발하고 이영숙, 박경란(2009)이 번안하였으며, 최선우(2010)가 이성교제 중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정한 이성관계 갈등대처방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 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5가지 유형 즉, 상대방의 소망과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관심사는 덮어두는 순응형, 상대방의 욕구는 희생시키는 대신 자신의 욕구에만 초점을 맞추는 지배형, 두 사람의 관심사를 어느 정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인 타협형, 두 사람의 욕구를 모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는 통합형, 그리고 갈등문제를 부정하거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는 회피형으로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순응형 .59, 지배형 .59, 타협형 .48, 통합형 .56, 회피형 .46으로 나타났으며, 신뢰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나 이 척도가 다수의 국내 선행연구에서 사용하여 그 타당성이 입증되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3) 이성교제 만족도

본 연구에서는 최선우(2010)가 사용한 이성교제 만족도 척도 중에서 전반적인 불만족에 해당하는 16문항을 역채점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권정혜, 채규만(1990)이 만든 한국판 결혼 만족도 검사(Korea Marital Satisfaction Inventory, K-MSI)를 유소영(2000)과 이복동(2001)이 이성교제에 해당되도록 수정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93으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D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660부의 설문지를 돌려 회수된 설문지 중에서 양극단에 치우친 응답만을 한 경우, 중간반응만을 한 경우, 무응답, 불성실 응답 자료를 제외하였으며, 이성교제 중이거나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최종 528명의 질문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이성관계의 만족도를 알아보고자 IBM SPSS Statistics 19를 사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고 변수 간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집단 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배치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도 분석에 투입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t=2.51$, $p<.05$)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며, 정서적 신뢰도는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1>과 같으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1>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성별	정서적 신뢰도(n)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02)	4.07	.72
	하(178)	3.77	.70
	합계(280)	3.88	.72
여자	상(154)	3.89	.69
	하(94)	3.45	.67
	합계(248)	3.72	.71
합계	상(256)	3.96	.71
	하(272)	3.66	.71
	합계(528)	3.80	.72

<표 2>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성별	7.68	1	7.68	15.76***
정서적 신뢰도	16.38	1	16.38	33.61***
성별*신뢰도	.55	1	.55	1.13

*** p<.001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15.76$, $p<.0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남자($M=3.88$, $SD=.72$)가 여자($M=3.72$, $SD=.71$)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주효과($F=33.61$,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정서적 신뢰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였다. 하지만 성별과 정서적 신뢰도의 상호작용효과($F=1.13$,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성별과 갈등대처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

대학생의 성별과 갈등대처유형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도 분석에 투입한 이유는 성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t=2.51$, $p<.05$)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며, 갈등대처유형은 순응형, 지배형, 타협형, 통합형, 회피형 각각 평균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성별과 갈등대처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3>, <표 5>, <표 7>, <표 9>, <표 11>과 같으며,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 <표 6>, <표 8>, <표 10>, <표 12>와 같다.

1) 순응형

<표 3> 성별과 순응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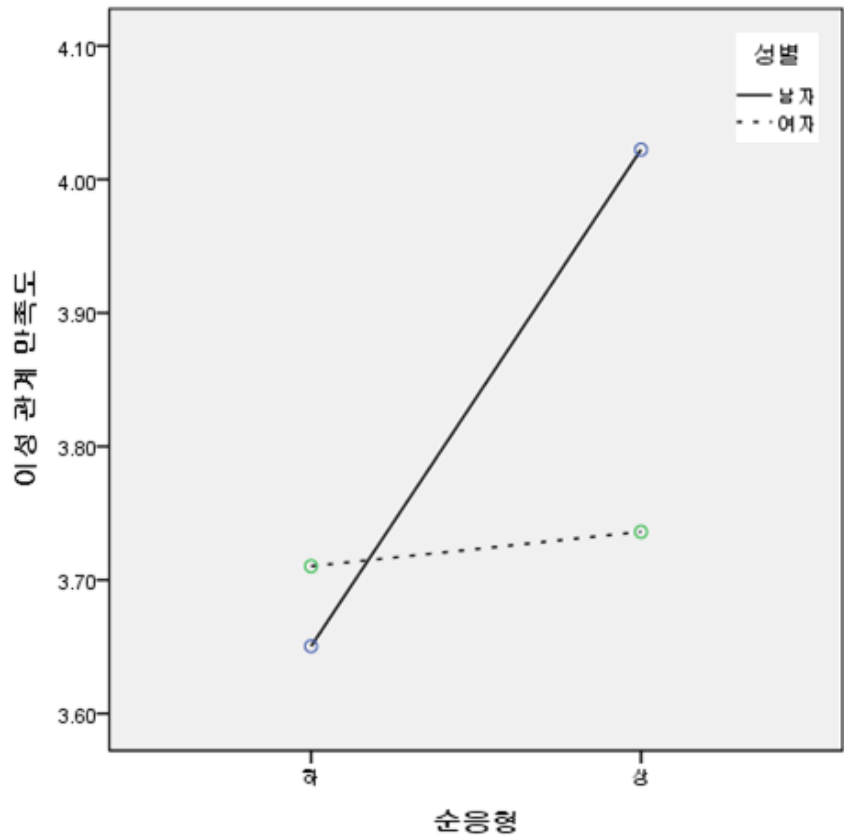
성별	순응형(n)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72)	4.02	.67
	하(108)	3.65	.75
	합계(280)	3.88	.72
여자	상(108)	3.74	.70
	하(140)	3.71	.73
	합계(248)	3.72	.71
합계	상(180)	3.91	.69
	하(248)	3.68	.74
	합계(528)	3.80	.72

<표 4>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1.63	1	1.63	3.24
순응형	5.02	1	5.02	10.02*
성별*순응형	3.81	1	3.81	7.59*

* p<.05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3.24$,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순응형에 따른 주효과($F=10.02$,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성별과 순응형의 상호작용효과($F=7.59$,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에 따르면, 순응형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높은 집단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1> 성별과 순응형의 상호작용효과

2) 지배형

<표 5> 성별과 지배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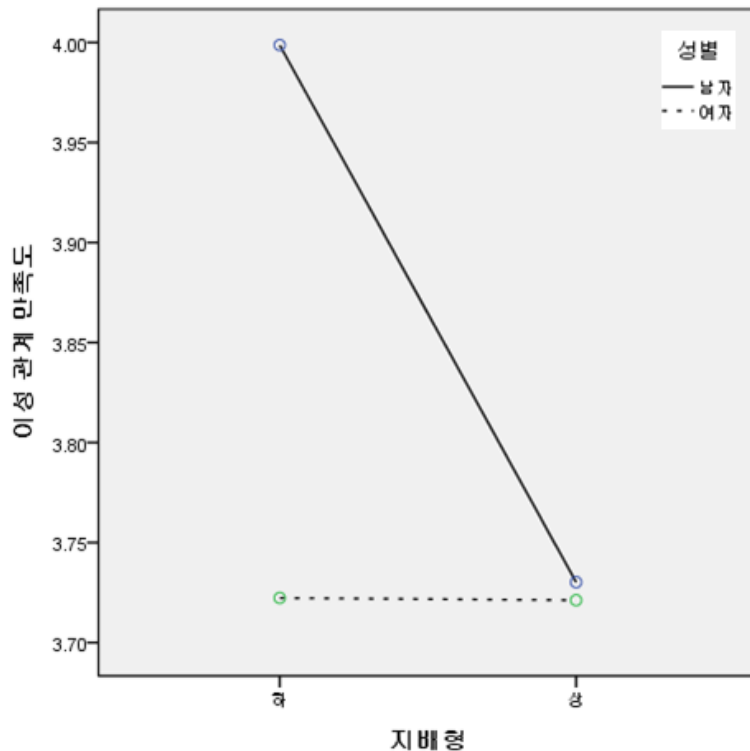
성별	지배형(n)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25)	3.73	.71
	하(155)	4.00	.71
	합계(280)	3.88	.72
여자	상(160)	3.72	.69
	하(88)	3.72	.75
	합계(248)	3.72	.71
합계	상(285)	3.72	.70
	하(243)	3.90	.74
	합계(528)	3.80	.72

<표 6>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54	1	2.54	4.99*
지배형	2.27	1	2.27	4.45*
성별*지배형	2.23	1	2.23	4.38*

* $p < .05$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4.99$, $p<.05$)와 지배형에 따른 주효과($F=4.45$, $p<.05$)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성별과 지배형의 상호작용효과($F=4.38$, $p<.05$)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에 따르면, 지배형 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남자가 더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지배형 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 비슷한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그림 2> 성별과 지배형의 상호작용효과

3) 타협형

<표 7> 성별과 타협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성별	타협형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77)	4.03	.67
	하(103)	3.62	.74
	합계(280)	3.88	.72
여자	상(153)	3.87	.70
	하(95)	3.48	.67
	합계(248)	3.72	.71
합계	상(330)	3.96	.69
	하(198)	3.55	.71
	합계(528)	3.80	.72

<표 8> 이성관계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2.74	1	2.74	5.71*
타협형	20.50	1	20.50	42.73***
성별*타협형	.01	1	.01	.02

* p<.05 , *** p<.001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5.71$, $p<.05$)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M=3.96$, $SD=.69$)가 여자($M=3.55$, $SD=.71$)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타협형에 따른 주효과($F=42.73$, $p<.0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타협형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였다. 하지만 성별과 타협형의 상호작용 효과($F=0.2$,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통합형

<표 9> 성별과 통합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성별	통합형(n)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59)	3.95	.72
	하(121)	3.78	.72
	합계(280)	3.88	.72
여자	상(144)	3.82	.72
	하(104)	3.58	.68
	합계(248)	3.72	.71
합계	상(303)	3.89	.72
	하(225)	3.69	.71
	합계(528)	3.80	.72

<표 10>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53	1	3.53	6.95**
통합형	5.49	1	5.49	10.79**
성별*통합형	.20	1	.20	.40

** p<.01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6.95$,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남자($M=3.89$, $SD=.72$)가 여자($M=3.69$, $SD=.71$)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합형에 따른 주효과($F=10.79$, $p<.01$)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며, 통합형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였다. 하지만 성별과 통합형의 상호작용효과($F=.40$,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5) 회피형

<표 11> 성별과 회피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 점수 (N=5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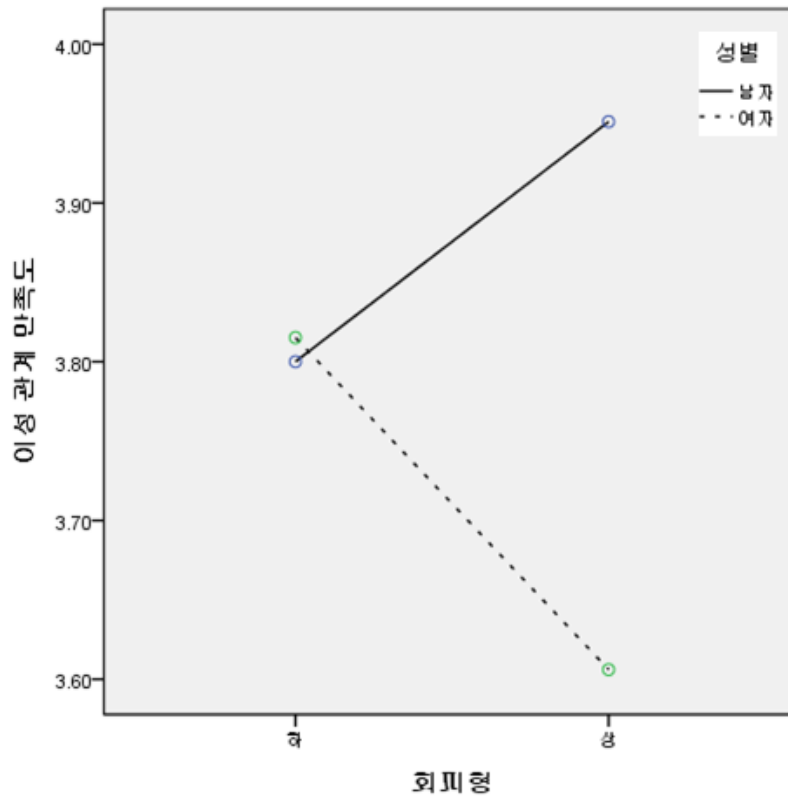
성별	회피형(n)	평균(M)	표준편차(SD)
남자	상(146)	3.95	.69
	하(134)	3.80	.76
	합계(280)	3.88	.72
여자	상(111)	3.60	.75
	하(137)	3.82	.67
	합계(248)	3.72	.71
합계	상(257)	3.81	.73
	하(271)	3.80	.71
	합계(528)	3.80	.72

<표 12>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결과 (N=528)

변인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성별	3.56	1	3.56	6.96**
회피형	.11	1	.11	.21
성별*회피형	4.24	1	4.24	8.30**

** p<.01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주효과($F=6.96$,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회피형에 따른 주효과($F=.21$, ns)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성별과 회피형의 상호작용효과($F=8.30$, $p<.01$)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으며, 회피수준이 낮은 집단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비슷하지만 회피수준이 높은 집단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이성교제에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성별과 회피형의 상호작용효과

3.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대학생의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Person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13>과 같다.

<표 13>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

	정서적 신뢰도	순응형	지배형	타협형	통합형	회피형	이성교제 만족도
정서적 신뢰도	1						
순응형	.22***	1					
지배형	.10*	-.31***	1				

타협형	.36***	.33***	.03	1			
통합형	.29***	.05	.31***	.32***	1		
회피형	.21***	.46***	-.15**	.17***	.01	1	
이성교제 만족도	.31***	.18***	-.14**	.35***	.19***	.04	1

* p<.05 , ** p<.01 , *** p<.001

먼저 이성교제 만족도는 정서적 신뢰도($r=.3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갈등대처유형 중 순응형($r=.18, p<.001$), 타협형($r=.35, p<.001$), 통합형($r=.19, p<.001$)과는 정적 상관이, 지배형($r=-.14, p<.01$)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회피형($r=.04, ns$)과는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정서적 신뢰도와 갈등대처유형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정서적 신뢰도는 순응형($r=.22, p<.001$), 지배형($r=.10, p<.05$), 타협형($r=.36, p<.001$), 통합형($r=.29, p<.001$), 회피형($r=.21, p<.001$)과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정서적 신뢰도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에 따른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남녀 대학생 528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원배치분산분석과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연구 문제에 따라 논의하고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1. 정서적 신뢰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

정서적 신뢰도와 성별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먼저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이성교제에 있어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선행연구들(강진희, 2011; 이복동, 2001; 정민, 2006; 홍대식, 2002)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이

러한 남녀 간의 만족도 차이는 남자가 이성교제 시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 그에 따르는 만족을 추구한 결과로 볼 수 있다(강진희, 2011; Cancian, 1985). 또한 정서적 신뢰 정도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서적 신뢰도 수준이 높은 집단이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정서적 신뢰와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이 이성교제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한 Deci 외(200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연인을 대상으로 사랑과 신뢰감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들은 연인들 간의 신뢰감이 사랑과 자기 노출의 깊이와 연관되고(Larzelere, & Huston, 1980), 상대방과의 많은 경험을 통하여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해하며 그 사람에게 자신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노출하면서 신뢰감이 형성된다(한송이, 2008)고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노출하여 높은 정서적 신뢰감을 형성하면 그 관계에 더욱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2. 갈등대처방식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의 차이

첫째, 성별과 순응형의 갈등대처방식에 따라 이성교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성별과 순응형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순응적이지 않은 집단보다 순응적인 집단의 남자 대학생들이 이성교제에 있어 더욱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이성교제에서 갈등이 생겼을 경우 남자가 상대방의 관심을 중심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할 때 남자 스스로 이성교제에 있어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성별과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중 지배형의 정도에 따른 관계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지배형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자 대학생들이 지배적이지 않은 집단에서 이성교제 만족도가 더욱 높았다. 즉, 이성교제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서 남자가 상대방의 의견은 무시하고 자신의 목표나 의견을 내세우기 위해 권력이나 힘을 이용하는 지배형으로 대처하지 않을수록 남자 스스로 이성교제에 대해 더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중 타협형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타협형의 정도에 따른 주효과는 나타났으며 성별과 타협형의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말해,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타협형의 정도가 높은 상 집단에서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남성과 여성

모두 타협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만족도가 높으므로 갈등 대처에 있어서 상호 희생을 통해 해결을 위한 타협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다.

넷째,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중 통합형에 대해서는 성별에 따른 주효과와 통합형 정도에 따른 주효과가 나타났으나 성별과 통합형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이성교제에서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형의 정도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갈등대처유형 중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해결 방법으로 알려진 통합적인 대처 방법을 사용할수록 이성교제에 있어 더욱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섯째, 성별과 갈등대처방식의 유형 중 회피형에 따른 이성교제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성별과 회피형 정도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가 존재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피형 점수가 높은 집단에서 남자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아졌으나 여자 대학생들은 이성교제 만족도가 낮아졌다. 즉, 갈등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피하려고 하는 경우 남자 대학생들은 그 관계에 있어 만족할 수 있지만, 여자들의 경우 만족 정도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동일한 상황이라도 성별에 따라 서로 다르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회피형의 갈등대처방식은 건설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므로 남자 대학생의 경우 일시적으로 관계에 만족한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회피형의 대처를 계속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선행연구(박영화, 고재홍, 2005)를 살펴보면 비난과 공격이 포함된 의사소통 행동과 회피적인 의사소통은 자신과 상대방 모두 관계에 있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 한다. 또한 갈등대처행동에 따른 결혼만족도를 살펴본 조유리(2000)의 연구에서도 갈등 상황에서 회피와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적게 하는 남자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피행동을 중간 이하로 하거나, 부정적 감정·행동 표출을 적게 하는 여자들은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본 연구결과와 더불어 선행연구결과들을 살펴보았을 때, 부정적 갈등대처방식에 속하는 순응형, 지배형, 회피형을 사용하는 남녀의 경우 이성교제에 있어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부정적 갈등대처방식이 계속된다면 훗날 결혼만족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따라서 관계에 있어 높은 만족수준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남녀 모두 서로의 의견을 존중해주며 서로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타협형과 통합형의 갈등대처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점을 대학생들이 이성교제 시 올바른 갈등대처방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교육프로그램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

3.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정서적 신뢰도, 갈등대처유형 및 이성교제 만족도에 대한 상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서적 신뢰도와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인 순응형, 지배형, 타협형, 통합형, 회피형, 그리고 이성교제 만족도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이는 정서적 신뢰도가 5가지의 하위 항목으로 분류된 갈등대처방식의 유형과도 정적 상관을 보였고, 정서적 신뢰도가 높을수록 이성교제 만족도 또한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순응형, 타협형, 통합형의 하위항목이 이성교제 만족도와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이루었는데, 특히 긍정적 갈등대처방식에 속하는 타협형과 통합형이 부정적 갈등대처방식에 속하는 순응형에 비해 이성교제 만족도가 더 높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한편 부정적 갈등대처방식의 유형에 속하는 지배형은 이성교제 만족도와 부적 상관을 이루었다. 따라서 긍정적 갈등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갈등대처유형 중 타협형과 통합형에 가까운 대학생은 이성교제 만족도가 높았는데 갈등상황에 대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기꺼이 행동을 변화시키려 하고, 배우자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투사를 하지 않는 ‘타협형’(Donimian, 1995)이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배우자와 협력하고 노력하고, 자신의 욕구는 물론 배우자의 욕구도 함께 고려하는 ‘통합형’의 방법(Berko 등, 1997)을 사용할 때 남편과 아내 모두 상호 존중감을 느끼고 이것이 남성들이 결혼생활의 만족을 높게 지각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선행연구(이영숙, 박경란, 2009)의 결과와 비슷한 맥락이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들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긍정적 유형의 갈등대처방식을 가진 대학생들은 연애 관계 만족도뿐만 아니라 훗날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D시 소재 대학교 한 곳에서 조사하였으므로 좀 더 넓은 집단을 선정하여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였기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일반화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연구 대상으로 이성교제 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길 바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커플을 함께 조사한 것이 아닌 각 개인의 특성과 생각을 반영한 것으로 연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커플 양방향간의 갈등대처방식 유형의 차이나 양방향간의 만족도는 확인 할 수 없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실제 연인관계를 이루고 있는 커플들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 또한 이성교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알아보기에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정서적 신뢰도가 높을수록 관계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관계만족도 향상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즉, 이성 교제 및 결혼 생활 교육에 있어 정서적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말하기 · 듣기 · 행동 방식과 자신을 솔직하고 깊이 있게 노출하는 기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순응하거나 공격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상황을 회피하기 보다는 서로의 욕구를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 통합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연인 자기들만의 갈등해결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이 실제 대학생들의 이성 교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에 반영된다면 대학생들의 이성교제 만족도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강진희(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정혜, 채규만(1998). 한국판 결혼만족도 검사의 표준화 및 타당화연구. 한국심리학회지 '98연차대회 학술발표논문집, 18(1), 35-50.
- 김영미(2005). 자아개념 증진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자아개념향상에 미치는 효과.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상희(2012).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 신뢰가 부부관계의 질에 미치는 영향: 기본 심리적 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이수원(1993). 갈등관리 훈련을 통한 갈등대처행동의 인지적 구성변인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과 심리치료, 5(1), 90-117.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 65-83
- 박윤경, 김은정(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논문집, 266-267
- 손현지(2009).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심리적 안녕감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홍익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소영(2000). 사랑요소의 지각된 불일치와 책임귀인양식에 따른 이성관계만족도.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복동(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숙, 박경란(2009). 기혼남성의 성격유형, 갈등대처방법과 결혼만족도와의 관계. 한국생활과학회지, 18(2), 275-286.
- 이윤미(2011). 커플 기본 심리적 욕구의 중요성과 헌신이 관계 만족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루진(2008). 의사소통유형에 따른 성인애착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우, 김명자, 계선자 (1992). 결혼과 가족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출판부
- 이지연(2011). 이성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민(2006).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유리(2000). 부부갈등 및 갈등대처 행동과 결혼 만족도.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선우(2010). 이성관계에서 자기에 성형이 갈등대처방식, 정서 및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송이(2009). 미혼남녀의 사랑유형과 자아존중감, 관계만족도 신뢰도와의 관계. 명지대학교 사회교육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Berko, R. M., Rosenfeld, L. B., & Samovar, L. A. (1997). *Connecting: A culture-sensitive approach to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2nd ed). New York: Harcourt Brace College Publishers.
- Cancian, F. M. (1985). Love and power in the private and public spheres. In Skolnick, A. S., & Skolnick, J. H. (ed.), *Family in transition*.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Cooper, C., & Cooper, R. (1992). Links between adolescents' relationships with their parents and peers : Models, evidence, and mechanism. In R. Parke, & G. Ladd (Eds.), *Family-peer relationships: Models of linkage*. (pp 135-158). Hillsdale, NJ: Erlbaum.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Journal of Psychology*, 134, 337-341
- Deci, E. L., La Guardia, J. G Moller, A. C., Scheiner, M. J., & Ryan, R. M. (2006). On the benefits of giving as well as receiving autonomy support: Mutuality in close friendship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 313-327.
- Deutsch, M. 1973. Conflicts: Productive and destructive. In *Conflict resolution through communication*, edited by F. E. Jandt. New York: Harper & Row.
- Dominian, J. (1995). *Marriage, the definitive guide to what makes a marriage work*. London: Heinemann.
- Folger, J.P., Hewes, D.E., & Poole, M.S. (1984). Coding social interaction. In B. Dervin & M. J. Voigt (Eds.), *Progress in communication sciences* (Vol. 4, pp. 115-161). Norwood, NJ: Ablex.
- Kelly, C., Huston, T.L., & Cate, R.M. (1985). Premarital relationship correlates to the erosion of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67-178.
- Lazelere, R. E. & Houston, T. L. (1980). The dyadic trust scale: Toward understanding interpersonal trust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 595-560.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2, 179-194
- Ryan, R. M., LaGuardia, J. G., Solky-Butzel, J., Chirkov, V., & Kim, Y. (2005). On the interpersonal regulation of emotions: Emotional reliance across gender, relationships, and cultures. *Personal Relationships*, 12, 145-163.

Abstract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 emotional reliance, conflict coping style,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Kim, Hye-Won* · Sung, Jung-Hye** · Lee, Sang-Ho*** · Bae, Yun-Ji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 emotional reliance, conflict coping style,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subjects were 528 university students and all respondents answered by self-report questionnair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of variance(ANOVA), and zero-order correlation analyses. The major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lationship satisfaction by gender and emotional reliance. Second, there were an interaction effect by gender and conflict coping style on the relationship satisfaction. Third,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university student' emotional reliance, conflict coping style, and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 emotional reliance, conflict coping style, dating relationship satisfaction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hild & Famil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Child & Famil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Undergraduate student, Department of Natural Fiber Science,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 Lecturer, School of Child Studie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